

러시아 국별리포트

2007.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 시 아

I. 일반개황

면적	17,075천 Km ²	G D P	9,790억 달러 (2006년)
인구	142.3백만 명 (2006년)	1 인 당 G D P	6,880달러 (200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Rouble
대외정책	CIS중시, 대서방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27.19 (2006년 말)

- 세계 최대의 국토면적에 풍부한 천연자원, 앞선 과학기술력,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임.
- 공산체제 붕괴 이후 체제전환의 진통으로 극심한 경제혼란을 겪으면서 1998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그 이후 루블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국제경쟁력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2000년부터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었음.
- 석유·가스분야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주요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과 국가통제 강화, 제도의 불투명성, 관료주의 비효율성 등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정치 및 경제 안정을 가져온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미국 등 서방과는 견제와 협력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며 국가위상 회복을 꾀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 2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 2차 산업은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 2000~05년 중 서비스산업 비중이 GDP의 57%로 집계되었으나, 러시아 정부통계가 3차 산업으로 분류한 에너지 유통관련 부문은 사실상 2차 산업의 성격을 가짐.
- 구소련 시절 산업구조의 잔재로 2차 산업은 에너지, 소재, 방위산업 등 중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아직은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음.
- 또한, 2차 산업 생산 중 섬유 등 경공업의 비중은 1.5%(2004년)에 불과하며, 세계은행은 20여개의 거대그룹이 산업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중소기업 생산/GDP 비중: 10~15%(선진국, 선발 체제전환국은 동 비율이 50% 이상)

□ 석유·가스분야 의존도 과중

- 동국 경제의 강점 중 하나는 석유·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이며,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음.
- 석유: 확인매장량(744억 배럴) 세계 7위, 생산량(2006년 4.8억 톤) 및 수출량(2006년 2.5억 톤) 세계 2위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48조 m³) 및 생산량(2006년 6,562억 m³) 세계 1위
- 기타 광물자원 풍부: 니켈, 철, 석탄, 비철금속, 다이아몬드, 플래티늄 등 세계적 자원 부존량 보유
- 그러나 경제성장, 재정수입, 수출의 에너지부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은 동국의 구조적 취약점이 되고 있으며, 동국 정부도 석유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통해 국제하락에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제조업 등 다른 부문의 기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부문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음.

□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심화 및 경제개혁 지연

- 푸틴 정부는 “전략적 분야”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략적 분야의 범위도 석유 및 천연가스에서 다른 천연자원, 자동차, 기계 등 주요산업분야를 망라하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통제확대를 위한 민간기업 국유화추진 사례

- Rosneft(국영석유회사)의 Yuganskneftegaz(Yukos의 최대 생산자회사) 인수
 - Gazprom(국영가스회사)의 Sibneft(민간석유회사) 인수
 - Rosoboronexport(국영무기제조회사)의 AvtoVAZ(최대 자동차회사) 인수
 - UES(국영전력회사)의 Power Machine(국내 2위 중장비업체) 인수
 - Gazprom의 OMZ(핵발전설비업체) 인수
 - Gazprom의 Slavenefit(민간석유회사) 보유지분 확대(50%→100%) 추진
 - Alrosa(국영다이아몬드회사)의 Norilsk Nickel 합병 추진
- 고유가에 힘입은 경기호황과 정치적 압력 등이 맞물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등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지연되고,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중요산업에서 민간기업들의 능동적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데, 이는 석유 등 주요산업의 투자부진과 생산효율성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단기적으로도 보건, 교육, 주택 등 복지투자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개혁정책은 2008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임.

□ 조세개혁 등 재정안정화에 주력

- 2000년 이후 유가강세와 조세징수 강화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지출억제 등으로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유가변동으로부터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석유안정기금(Stabilization Fund)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4년 1월 설정된 석유안정화기금에는 2007년 4월 1일 현재 1,081억 달러가 적립되어 있으며, 동국 정부는 미래세대기금 등 석유수입을 활용한 새로운 기금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조세부담이 과중하고 복잡한 조세제도 개혁에 나서, 단일소득세율(13%) 도입, 사회복지세제 개혁, 물품세 폐지, 법인세율 인하, 공제항목 정비, 부가세율 인하 등 일련의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통화정책, 환율상승 억제에 주력

- 중앙은행(RCB)은 물가안정과 루블화 강세 억제라는 갈등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루블화 실질환율이 2005년 10.5%에 이어 2006년 상반기 중 7.9% 평가절상
- RCB는 루블화 강세요인이 많은 거시경제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외환보유액 증가, 국내통화량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점차 축소되면서 RCB의 외환시장 개입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환율체제 및 물가목표제(inflation-targeting)로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2.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e
경제성장률	4.7	7.3	7.2	6.4	6.7
재정수지 / GDP	1.7	2.4	4.9	7.5	7.5
소비자물가상승률	15.8	13.7	10.9	12.7	9.7

자료: IFS 및 EIU, Country Report 등.

□ 2005년부터 경제성장세 둔화

-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산업경쟁력 회복과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은 원유생산 증대로 경제성장률이 1999~04년에 연평균 6.8%를 기록했으며, 2003~04년에는 7%를 넘어섰음.
- 한편, 2004년 하반기 이후 석유생산 정체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005년부터 경제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기대 이상의 국제유가 강세로 경제성장 실적은 비관적인 전망을 웃돌고 있음.
 - * 2002~04년 중 9~11%에 이르렀던 원유생산 증가율이 2005년 2.2%, 2006년 2.1% 등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최근 국제유가 강세와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투자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 생산병목현상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5~06년 모두 연초에는 원유생산 정제와 루블화 강세에 따른 제조업 수출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6%를 밑돌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인데다 실질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확대에 힘입어 2005년 6.4%, 2006년 6.7% 등 기대보다 양호한 경제성장 실적을 이루었음.

* '06년 상반기 우랄산 원유 평균가격: 62.4달러(전년 동기 대비 33.5% 상승)

- 2007년에도 내수 증가가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나, 에너지생산 둔화, 통화강세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등이 맞물려 경제성장률은 6%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임. 그러나 러시아 경제부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내수소비 확대와 활발한 산업생산에 힘입어 2007년 1~2월 GDP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4%(2006년 1~2월은 5.1%) 기록(러시아 경제부)

* 러시아 경제부 2007~10년 중기 성장전망 상황 조정 : 2007년(6.2%→6.5%), 2008년(5.9%→6.1%), 2009년(5.9%→6%), 2010년(6.1%→6.2%)

□ 물가관리 어려움 가중

- 경제위기 이후 물가는 꾸준히 안정되는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5년에는 러시아 정부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8%로 설정했다가 다시 10%로 완화했으나, 전체 물가상승률은 정부목표를 상당히 벗어난 12.7%를 기록했음. 또한, 2006년에도 해외유동성 유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루블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확대정책, 재정지출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10%에 육박했음.

- 2007년에도 해외유동성 유입, 내수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소폭 둔화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였으며, 매년 물가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재무부는 2007년 8%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5.5%까지 물가상승률을 낮출 계획임.

□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흑자 폭 점차 축소

-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흑자 폭이 GDP의 7.5% 수준에

이르렀음.

- 2006년에는 인프라투자와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GDP 4% 수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 힘입어 지난해와 동일한 GDP의 7.5%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7~08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정부는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계획(재정수입 13% 증가, 재정지출 23% 증가 예상)을 가지고 있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7년 6%, 2008년 4.7% 등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a
경 상 수 지	29,116	35,410	59,003	83,348	95,600
경 상 수 지 / G D P	8.4	8.2	10.0	10.9	9.8
상 품 수 지	46,335	59,859	85,825	118,266	139,600
수 출	107,301	135,929	183,207	243,569	302,300
수 입	60,966	76,070	97,382	125,303	162,700
외 환 보 유 액	44,053	73,174	120,805	175,891	295,568
총 외 채 잔 액	147,427	175,523	197,335	258,500	292,9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42.7	40.7	33.5	28.1	29.9
D . S . R .	11.2	11.8	9.8	13.8	15.6

자료 : IFS, EIU 및 CBR 등.

□ 교역구조

- 품목별로 에너지 및 금속제품이 전체 수출의 80% 정도를 차지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수출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계 장비(40%) 및 식품 및 농산물(13%), 석유화학제품(13%) 등이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임.

- 국가별로는 EU가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CIS지역은 러시아 수출의 16%, 수입의 23%를 차지하여 EU 다음의 교역상대임. 특히, 석유·천연가스는 EU가, 금속제품은 CIS지역이 주 수입지역임. 한편, 최근에는 중국이 점차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6년을 정점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 점차 축소

- 2000년 이후 루블화 강세, 내수확대 등에 따라 물량기준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수출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2006년에는 국제유가 강세가 물량둔화를 상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도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1,39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수출증가율(물량기준) : 2004년 11%, 2005년 5%
 * 수입증가율(물량기준) : 2004년 23%, 2005년 16%,

- 그러나 2007년에는 내수증대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수입증가세 둔화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1,3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도 점차 축소

- 서비스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는 국제수지 구조로 인해 1997~98년을 제외하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해 왔으며, 1999년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특히 2000년에는 GDP 대비 18%(470억 달러)라는 기록을 수립하였음.

- 계속되는 고유가에 힘입어 200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05년에 860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6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당초 전망에 다소 못 미치는 95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의 급격한 증가는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이어지며, 동국의 거시경제 안정 및 국가신인도 개선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었으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에다 FDI 및 해외차입 급증에 따른 소득수지 악화로 2007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가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1/4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대비 28.5% 감소한 218억 달러에 머물렀음. 이는 주로 큰 폭의 수입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 축소에 기인함(러시아 중앙은행).

□ 외환보유액 지속적으로 증가

- 2002년 이후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늘면서 2005년 말에는 1,7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 말에는 3,0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확고히 지키고 있음.

* 2006. 4 한국, 2006. 6 대만을 각각 추월하여 세계 3위가 되었음.

* 러시아 외환보유액 : 3,463억 달러(2007. 4. 6.)

-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 기업들의 해외차입 증가에 따른 것이나, 최근에는 루블화 환율하락을 유도하려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달러 매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 2006년 31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FDI 유입액은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억제 등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장 확대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2005년 FDI 실적은 2004년의 148억 달러보다 감소한 128억 달러에 머물렀으나, 이는 통계분류상의 문제로 실질적인 FDI 실적은 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06년 러시아의 해외투자도 2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외채상황 지속적으로 개선

- 경제여건 개선과 함께 민간부문의 해외 기채활동이 늘어나면서 외채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으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GDP 대비 외채비율은 2003년 40%대에서 2006년에는 20%대에 들어섰음.

- DSR도 10% 전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5~06년에는 정부의 파리클럽채무 대규모 조기상환에 따라 DSR이 다소 높아졌음.

- 특히 2004년부터 적립되어 최근 그 규모가 크게 확충된 석유안정기금을 재원으로 러시아 정부는 2005년 중 IMF 차관 33억 달러와 파리클럽채무 150억 달러 등을 조기 상환한 데 이어 2006년 8월에는 파리클럽 채무

237억 달러 전액(224억 달러 원금 포함)을 상환하였음.

* 정부외채/GDP : 10.2%('05년 말) → 5%('06. 8)

- 정부의 대규모 외채상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기채활동에 나서고 있어 외채총액은 빠르게 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 민간외채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권력 승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 2000년, 2004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과감한 개혁 및 국가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푸틴은 자신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및 구 비밀경찰 출신 인사들의 대거 등용, 지방정부 주지사의 임명제로의 전환, 독립 언론 기관 · 야당 · NGO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로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모든 사회분야를 국가가 통제하는 관리민주주의(managed democracy)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음.
- 2007년 총선과 2008년 3월 대선은 러시아의 중요한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 이후 현재 강력한 권력이 집중된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개헌을 통한 3선 시도 등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으나, 푸틴이 예정대로 권좌에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푸틴이 강력한 지도력을 유지했던 만큼 2008년 대선 이후 러시아 차기 권력구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국가위상 강화에 나서

- 푸틴 대통령은 고유가에 힘입은 개선된 경제상황과 에너지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해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입지를 강화해 왔음.
-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적극적인 협력태도를 표방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음.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고 나섰으며, 이란 핵문제와 팔레스타인 하마스 문제 등에도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며 국제문제 중재자로서 자신의 위상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과는 협력보다는 대립이 우세

- 러시아는 CIS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놓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음. 에너지를 무기로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 길들이기에 나서는 한편, 대 테러전쟁을 명분으로 미군기지 설치를 용인했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등과도 에너지협력 강화를 통해 점차 영향력을 복원하고 있음.
- 미국 견제라는 공통목표를 가진 중국과도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G8의 정회원국 자격 확보와 WTO 가입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6. 3. 21~22 푸틴은 재임 중 4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양국간 주요의제는 에너지 협력문제였음.
 - 러시아는 2006년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8 정상회담을 주최하였음.
 - 2006년 11월 APEC 정상회담 시 미국과 양자간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WTO 가입을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넘겼으며, 2007년 중 WTO 정식 가입이 유력한 상황임.
- 그러나 최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한다는 구실로 폴란드, 체코 등에 MD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과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우고 있으며, 상당기간 양 강대국 간에는 협력보다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테러 등 불안요인 요인 상존

- 1999년 이후 체첸 반군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강압적인 진압에 나서고, 이에 대응하는 체첸 반군의 반복적이고, 강력한 테러활동은 상당한 사회불안 요인이 되어 왔으며, 서방세계에는 체첸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에 대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였음.

* 체첸반군의 주요 테러활동 사례

- 1999년, 수차레 모스크바의 주거용 아파트에 대한 폭탄테러(200명 이상 사망)
- 2002년, 모스크바 극장 600명 인질사건(진압과정에서 100명 이상 사망)
- 2004년, 2개 국내공항에 대한 연쇄 폭탄테러
- 2004년, 북Ossertia의 Beslan 학교 인질사건(300명 이상 아동 사망)
- 2004~05년, 북 코카서스지역에서 400회 이상 테러 발생

□ 러시아 정부, 복지여건 개선에 주력

- 러시아는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러시아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구소련붕괴 이후 체제전환 과정의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었음. 그러나 각종 보건 및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1960년대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경제여건 개선으로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은 사망률을 밑돌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국가 우선분야”로 선정하고, 보건, 교육, 주택문제 개선,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개선된 경제여건과 맞물려 사회적 안정성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Moody's : Ba3('01. 11)→Baa3('03. 10)→Baa2('05. 10)
- o Fitch : BB+('03. 5)→BBB-('04. 11)→BBB('05. 8)→BBB+('06. 7)
- o S&P : BB+('03. 5)→BBB-('05. 1)→BBB('05. 12)→BBB+('06. 9)
- o I.C.R.G : 40/140 (2006. 2) → 36/140 (2007. 1)
- o I. I : 55/173 (2006. 3) → 55/173 (2006. 9)
- o Euromoney : 62/185 (2006. 3) → 59/185 (2005. 9)
- o OECD : 4등급 (2006. 1) → 3등급 (2007. 1)

* 재무리스크의 개선상황을 반영하여 2005년 중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씩 상향 조정했으며, 2006년에도 7월 Fitch에 이어 9월 S&P가 등급을 상향 조정함.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 수은 : 민간·공공부문 제한적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 제약조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 단·중기 정상인수
- 네덜란드 Atradius :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외채 조기상환

- 2005년 1월말 IMF의 구조조정차관 33억 달러 조기상환, 2005년 8월중 150억 달러의 채무 조기상환에 이어 2006년 8월 파리클럽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음.

V. 종합 의견

- 고유가 지속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동국의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재정건전성도 높아졌으며, 고성장 지속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은 내수확대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
- 동국은 경제력 향상과 함께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과거 초강대국이었던 국가 위상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의 경제개입이 확대되면서 야기되고 있는 경제개혁 지연과 불투명한 제도환경은 여전히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2008년 푸틴의 권력이양은 동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것임.
-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크게 개선된 경제지표들(경상수지, 상품수지, 재정수지 등)은 점차 개선 둔화 또는 악화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임.
- 따라서 동국의 과다한 석유산업 의존으로 인해 동국 경제는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리스크를 안고 있으나, 고유가로 인해 개선된 동국의 대외지급능력으로 인해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은 크게 낮아졌음.

선임조사역 고재호(☎02-3779-6652)

E-mail : kohjh@koreaexim.go.kr